

주민 참여 마을 가꾸기 '보성 600사업' 속도

올해 275곳 중 251곳 마무리...412곳 사업 마쳐 군, 추진단 구성 마을별 사업 컨설팅 등 사후 관리

보성군의 역점 사업인 '우리동네 우리가 가꾸는 보성 600사업'에 올해 270여개 마을이 참여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행한 보성 600사업은 보성군 전체 600여개 마을을 주민 스스로 가꾸는 주민 참여형 마을 가꾸기 사업이다.

지역 모든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한 지자체는 보성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현재 보성지역 412개 마을이 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 중이다.

올해는 275개 마을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며 벌써 90% 넘는 251개 마을이 관련 사업을 마무리했다.

군은 나머지 마을도 농사일로 바빠지는 이달 중순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읍·면민회장과 이장단으로 구성된 추진단을 구성하고 마을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컨설팅하고 있다.

또 마을별 특색에 맞는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마을이 변해가는 모습도 홍보하고 있다.

보성 600사업은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전남도의 '정정 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도입돼 전남지역 22개 시군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보성군은 사업이 완료된 마을의 경우 사후관리를 통해 아름다운 마을을 유지하도록 하고, 오는 9월께 우수 마을을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동체 정신이 필요하다"며 "보성의 공동체 정신을 전국에 알려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김철우 보성군수가 보성 600사업으로 진행된 마을 가꾸기 사업에 참여, 벽화 작업을 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디지털 활용 노인 건강관리 곡성군 복지부 공모사업 선정

곡성군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노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돼 2억8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사업 대상자에게 손목시계형 활동량계, 블루투스 혈압·혈당계 등 다양한 건강측정기기를 제공한다.

보건 전문인력은 기기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대상자와 소통하며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곡성군은 준비과정을 거쳐 연말께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며 건강행태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중 고령독거인과 만성질환 등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고령자 600여명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지역에서 건강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kwangju.co.kr

광양제철소, 장애인 빨래 해주고 말벗 돼주고

수거에서 배달까지 장애인 참여 '행복이음 빨래방' 운영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홀로 세탁하기 힘든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행복이음 빨래방'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행복이음 빨래방 사업은 일상생활이 불편한 광양시 중증장애인들이 혼자서 세탁하기 힘든 대형 세탁물을 수거·세탁부터 배달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거나 배달을 위해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할 때, 잠시 말벗이 돼 이들의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

광양제철소 '행복이음 세탁 재능봉사단'은 이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아 봉사활동을 펼치고, 지역 내 중증장애인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다.

지난 4월 장단한 이들은 책임감 있는 봉사활동을 위해 세탁 관련 전문교육과 장애인 이해 교육까지 이수한다.

행복이음 빨래방 사업은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

대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형 사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총 6명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세탁·건조·포장 등 세탁 지원 업무를 맡길 계획이다.

광양제철소는 지역 내 중증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깊이 공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해당 사업의 추진을 결정했다. 포스코 직원들의 급여 1%로 조성된 '포스코1%나눔재단' 기탁금을 활용해 총 4600만 원을 지원한다.

이철호 광양제철소 행정부소장은 "중증장애인의 청결한 생활환경 유지에 도움이 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제철소는 지난 4월 광양시 발달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전문 제과제빵사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지난해 10월은 '희망의 장경다리' 3기 발대식을 갖고 중증장애아동들을 위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광양제철소 '행복이음 세탁 재능봉사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일 중대장애인복지관에서 행복이음 빨래방 개소식이 열렸다. <광양제철소 제공>

재활용품 선별 도우미 채용 순천시, 14일까지 접수

순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급증한 재활용품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택배, 포장 등 비대면 소비 증가로 급증한 재활용 폐기물의 수거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배출단계에서부터 선별인력을 지원해 재활용 품질을 개선하고 폐기물이 적체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오는 14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103명의 재활용 선별 도우미를 채용할 계획이다.

도우미들은 6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간의 무관리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거점수거장소에서 재활용 폐기물 선별과 올바른 분리배출 유도역할을 하게 된다.

그동안 잘못된 분리배출 행태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과 폐기물처리 비용이 증가해 왔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여수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 올해도 달린다

뮤지컬·문화해설·버스킹 등 이벤트...11월 중순까지 야간 시티투어

여수시의 밤바다를 달리는 낭만버스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가 올해도 어김없이 여수를 누닌다.

여수시에 따르면 야간테마 코스 시티투어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시티투어와 뮤지컬, 문화해설, 버스킹이 어우러진 이벤트형 테마 버스로 오는 11월 중순까지 여수밤바다에서

만날 수 있다.

마법의 정령, 시간의 정령, 약기의 정령이 낭만버스에서 벌이는 사랑 이야기를 주제로 뮤지컬의 생생한 공연과 트럼펫 연주를 펼치는 낭만버스커의 공연은 달리는 버스에 탄 관광객을 환상과 추억의 세계로 인도한다.

또 공연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로 즐거움과 감동을 선물한다. 가족, 친구, 연인에게 미안함과 고마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의 세레나데, 낭만 열서 보내기와 여수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여수퀴즈 팸팡, SNS 탑승 후기 이벤트가 관광객을 맞이한다.

탑승 소감을 개인 SNS와 블로그 등에 올린 후 여수 관광문화 홈페이지에 주소를 올리면 선정을 통해 상품도 받을 수 있다.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7시 30분에 이순신광장을 출발해 2시간 동안 소호동동다리, 돌산대교, 거북선대교, 종포해양공원 등 여수 대표 야경명소를 찾아간다.

탑승 예약은 시 홈페이지 OK 통합 예약 포털에서 가능하다.

여수시 관계자는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의 인기 비결은 여수의 아름다운 밤바다를 배경으로 뮤지컬과 버스킹 공연 등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점"이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탑승객 인원 조정,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으로 탑승객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제92회
춘향제
남원

http://youtube.com/남원와락

비대면·온라인 방송일정 안내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춘향제향	전국춘향선발대회
5월 16일(월) 13시 40분	5월 19일(수) 8시 30분	5월 19일(수) 19시 30분

실천하는 현재

함께하는 미래

코로나19가 빠르게 종식되길 기원합니다.
2022년 제92회 춘향제에서 꼭 다시 만나요!